

# 張介賓의 六十四卦 方圓圖에 대한 闡發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尹暢烈<sup>\*</sup>

## 張介賓의 六十四卦 方圓圖에 대한 闡發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尹暢烈

通過對伏羲六十四卦次序圖, 方圖, 圓圖的研究, 以及張介賓對六十四卦方圓圖中所闡發的醫易學內容的研究, 得出如下結論:

1. 六十四卦的生成原理中, 存在邵康節的一分爲二法說和繫辭傳的一貞八悔說, 而使之橫向排列的圖, 稱爲伏羲六十四卦次序圖(大橫圖). 從此圖, 可清楚知曉六十四卦的生成根源.

2. 伏羲六十四卦圓圖, 把大橫圖分爲了兩部分, 即前三十二卦從左上方向下進行了配置, 而後三十二卦從右上方向下圓形進行了配置. 此圖以子午卯酉爲中心清楚地顯示出了陽始(子), 陽長(卯), 陽極(午), 陰始(午), 陰長(酉), 陰極(子)等的象, 體現了天道循環的道理.

3. 伏羲六十四卦方圖, 也由來於大橫圖, 亦體現了地道原理及先天法象的自然之妙.

4. 伏羲六十四卦方位圖是根據天地之理, 在伏羲六十四卦圓圖內配置了伏羲六十四卦方圖. 這是由朱子首次配置的. 圓圖以圓形進行了配置, 中空狀態體現了天之循環的秩序, 而方圖以方形進行了配置, 中間充實體現了地之存在的狀態, 其作用均始於中心部. 方圓圖中包含着一個月的變化, 一年的運行, 129,600年之宇宙一年的變化, 天地的終始, 人物的生死, 古今世變的原理等.

5. 張介賓確立了用易學原理解釋醫學的醫易學, 把六十四卦方圓圖與人體進行結合作了闡發.

其一, 其認爲六十四卦圓圖的中心是太極, 此部相當於人體之心, 而乾南坤北和離東坎西, 分別對應於上首下腹和左右耳目.

其二, 圓圖以四等分的四象, 把人生分爲了四分, 并分別進行了配屬. 這說明了把六十四卦與『素問·上古天真論』中以八數爲變的丈夫原理, 所進行的配屬關係.

其三, 其認爲在圓圖中, 如同陽始生的復卦(天根)與陰始生的姤卦(月窟), 相互交替進行循環一樣, 人的生長衰老的道理和一日中寤寐的道理是一樣的.

其四, 其在圓圖中, 以天陽在南和天不足西北, 來說明了乾在南和坤在北的道理, 并在方土中以地剛在北和地不滿東南, 來說明了乾在西北和坤在東南的道理, 以六十四卦的原理與醫學密接結合, 對之進行了說明.

Key Words: 張介賓, 六十四卦

## 1. 緒論

\* 이 논문은 2005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5-042 -A00044)  
\* 교신저자: 윤창열,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외사학교실, 042) 280-2601, yooney@dju.ac.kr

손사막이 “不知易이면 不足以言太醫라”고 언급한 이래 이후의 醫家들은 易의 理論을 援用하여 자연스럽게 醫學의 理致를 설명하였다. 唐代의 王冰은 周易의 原文을 引用하여 素問을 注釋하였고 金元時代에

이르러 劉完素의 火熱論, 李杲의 脾胃升降論, 朱震亨의 相火論 등에도 周易의 理論이 스며들어 있다.

이와는 별도로 宋元代 이후의 몇몇의 象數易學家들은 사람의 五臟六腑와 生理活動 등을 끌어다가 先天圖와 河圖洛書 등을 해석하기 시작하였다. 張行成은 『周易變通』을 지어 邵雍의 『皇極經世』를 계승 발전시켰고 俞琰은 象數學派의 理論을 重視하여 邵雍의 先天學에 입각해서 周易參同契를 새롭게 解釋하여 『易外別傳』을 지었는데 여기서 그는 醫學과 內煉術을 結合하여 血脈과 呼吸의 순환 이치를 설명하였다.

또 張理는 저명한 醫家 杜本(淸碧先生)을 師事하여 醫學에 대한 조예가 깊었는데 저서 『易象圖說』속에서 사람의 五臟六腑를 四象八卦의 圖式속에 넣어 四象八卦六體之圖라고 명명하였다. 이러한 학문적 배경을 바탕으로 明代에 이르러 易理로써 醫學의 이치를 설명한 一群의 醫學家들이 출현하였는데 孫一奎, 趙獻可, 張介賓 등을 대표로 꼽을 수 있다. 이중 장개빈은 類經의 注解時에 대량의 易學理論으로 內經을 해석하였고 특히 醫易義라는 글을 지어 체계적으로 易學과 醫學의 關係를 論述하였다.

그는 특히 邵雍을 推崇하여 소옹의 說을 그의 저서 곳곳에서 언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옹에 대해 『類經圖翼氣數統論』에서 “數之爲學 豈易言哉리오 苟能通之면 則幽顯高下를 無不會通이오 而天地之大와 象數之多를 可因·而推矣리니 明乎此者는 自列聖而下로 惟康節一人哉인저”라 하였다.

복희육십사괘차서도, 복희육십사괘원도, 복희육십사괘방도 등도 모두 소강절의 『皇極經世』로부터 대중화 되었다. 소강절은 이에 깊은 연구를 하여 후세에 전해 주었고 다시 朱子가 이를 부연 설명하여 그의 이론체계를 확고히 하였다. 장개빈은 이러한 틀에 기초하여 육십사괘방원도를 가지고 인체구조와 생리변화를 설명하였다. 이에 저자는 복희육십사괘차서도, 방도, 원도에 대해 소강절과 주자가 해설한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이를 의학적으로 결합하여 설명한 장개빈은 說을 연구하여 육십사괘방원도에 담겨있는 醫易學的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복희 육십사괘 차서도

8괘가 그려진 유래에 대해서 孔安國의 則河圖劃卦說, 孔子의 仰觀俯察說, 邵康節의 一分爲二法說 등이 있었듯이 64괘가 그려진 원리도 一分爲二法說과 一貞八悔說의 두 종류가 있다.

一分爲二法說에 대해 주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팔괘의 그림 위에 각각 한 개의 홀수와 한 개의 짝수를 생하면 네 개 효의 그림이 열여섯 개가 된다. 『역경』에는 보이지 않으나 소자의 이른바 “여덟이 나뉘어져 열여섯이 된다”는 것이 이것이다. 또 음양 위에 각각 팔괘를 더하거나, 팔괘 위에 각각 음양을 더한 것이다.(八卦之上에 各生一奇一耦하여 而爲四畫者十六이니 於經無見이나 邵子所謂 “八分爲十六”자가 是也라. 又爲兩儀之上에 各加八卦오 又爲八卦之上에 各加兩儀也니라)

네 효의 그림 위에 각각 한 개의 홀수와 한 개의 짝수를 생하면 다섯 효의 그림이 설흔 두개가 된다. 소옹의 이른바 “열여섯이 나뉘어 설흔둘이 된다”는 것이 이것이다. 또 4상의 그림 위에 각각 팔괘를 더한 것이고, 팔괘의 그림 위에 각각 4상을 더한 것이다.(四畫之上에 各生一奇一耦하여 而爲五畫者三十二니 邵子所謂 “十六分爲三十二者”가 是也라. 又爲四象之上에 各加八卦오 又爲八卦之上에 各加四象也니라.)

다섯 효의 그림 위에 각각 한 개의 홀수와 한 개의 짝수를 생하니, 여섯 효의 그림이 예순넷이 된다. …… 소자가 “32가 나뉘어져 64가 된다”고 한 것이 이것이다.(五畫之上에 各生一奇一耦하여 而爲六畫者六十四라 …… 邵子所謂 “三十二分爲六十四者” 是也라.)<sup>1)</sup>

이것은 易傳의 “易有太極하니 是生兩儀하고 兩儀生四象하고 四象이 生八卦”한다는 이론을 推衍하여 설명한 것이다.

이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김상섭 해설. 역학계몽. 서울. 예문서원. 1994. pp. 117-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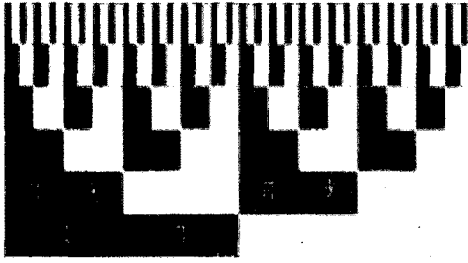


그림 1 복희육십사괘차서도

이를 소강절은 伏羲六十四卦次序圖 또는 大橫圖라고 하였다.

복희팔괘차서도, 복희팔괘방위도, 복희육십사괘차서도, 복희육십사괘방위도(64괘 원도 안에 64괘 방도가 들어있는 그림)의 복희 4도는 陳搏 총방 목수 이지계를 거쳐 소강절에게 전수되었고 소강절은 이를 선천지학이라고 하였다. 그는 이 네 그림이 선천학의 내용이고 주역은 복희가 창시했으므로 이 그림들을 복희라는 이름으로 칭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소옹이 말한 후천학은 문왕팔괘차서도와 문왕팔괘방위도의 두 그림을 말한다. 그는 이 두 그림이 문왕에 의해 발전된 것이라 여겨 이 두 그림은 문왕이라고 칭하였다. 소옹이 말한 선천이란 태극에서 팔괘와 64괘에 이르기까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스스로 생한다(自生)는 뜻을 담고 있다. 후천이란 건곤부도의 괘로부터 여섯 자식의 괘를 이루는 것이 인위적인 것이므로 만들어 생한다(造生)는 뜻을 담고 있다.<sup>2)</sup>

一貞八悔說은 內卦 즉 下卦를 貞이라 하고 外卦 즉 上卦를 悔라고 하는데 하나의 內卦 위에 8괘를 배합하여 이를 여덟 번 반복하여 64괘를 얻는 방법이다. 이는 기본이 되는 아래 괘는 그대로 있고(一貞) 위에만 여덟 번 바뀌어(八悔) 64卦(8×8=64)를 이루는 방법이다. 이는 주역 계사전에 있는 “因而重之하니

2) 김상섭 해설. 역학계몽. 서울. 예문서원. 1994. pp. 87-88.

爻在其中矣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즉 복희팔괘차서도를 배치하고 그 위에 一乾天, 二兌澤, 三離火, 四震雷, 五巽風, 六坎水, 七艮山, 八坤地를 차례로 왼쪽으로 배합해서 64괘를 얻는 방법으로 一分爲二法으로 64괘를 도출해 낸 것과 동일한 결과를 얻는다. 두가지 방법이 서로 완전히 다르지만 그 결과는 동일하게 나온 것에 대해 朱子는 “二數殊塗나 不約而會하여야 如合符節하여야 不差毫釐하니 正是易之妙處라”<sup>3)</sup>고 하였다.

64괘 차서도에 대해 주자는 袁樞(1131-1205, 建安人, 字機仲)에게 답하는 말에서 “성인이 역을 지은 근원을 분명하게 알려면, 책머리에 있는 횡도(옆으로 된 그림)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 두 획만 있을 때부터 짐차로 보아서 여섯 획이 생겨 가득할 때까지 이르면, 선후와 다과(多寡)에 차례가 있고 위치가 분명해서 말이 필요없으니, 여기에서 보면 64괘가 모두 하늘이치의 자연함에서 차례대로 배출되어 나왔음을 알 것입니다. 성인이 다만 분명하게 봐서 본래대로 그어놓은 것일 뿐, 원래부터 털끝만한 지혜도 첨가해 도운 것이 아닙니다”<sup>4)</sup>라고 하였다.

### 3. 복희육십사괘원도

먼저 그림을 그려놓고 나서 내용을 설명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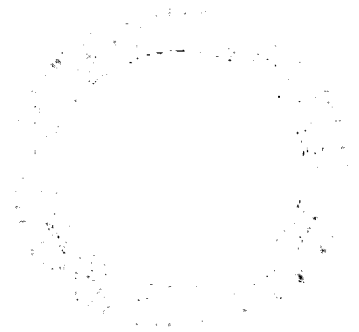


그림 2 복희육십사괘원도

3) 주역元. 대전. 학민문화사. p. 96.

4) 주역元. 대전. 학민문화사. p. 88.

이 그림은 복희 육십사괘 차서도를 둘로 나누어 앞의 32괘는 왼쪽에 위에서 아래로 둥글게 배치하고 뒤의 32괘는 오른쪽에 위에서 아래로 둥글게 배치한 것이다.

一分爲二法을 통해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림 좌측 32괘의 初爻(제일 안쪽에 있는 爻)는 모두 陽爻로 되어 있고 우측 32괘의 初爻는 모두 陰爻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太極이 既分에 兩儀가 나오는 것을 상징한다.

이 그림은 복희 육십사괘 차서도를 둘로 나누어 앞의 32괘는 왼쪽에 위에서 아래로 둥글게 배치하고 뒤의 32괘는 오른쪽에 위에서 아래로 둥글게 배치한 것이다.

一分爲二法을 통해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림 좌측 32괘의 初爻(제일 안쪽에 있는 爻)는 모두 陽爻로 되어 있고 우측 32괘의 初爻는 모두 陰爻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太極이 既分에 兩儀가 나오는 것을 상징한다.

二爻에서 좌측 32괘의 위의 16爻는 陽爻로 되어 있으니 太陽이 되고 아래의 16爻는 陰爻로 되어 있으니 少陰이 되고 우측 32괘 중 위의 16爻는 陽爻로 되어 있으니 少陽이 되고 아래 16爻는 陰爻로 되어 있으니 太陰이 되어 四象이 分化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三爻에서는 太陽에서 위의 8爻는 陽爻로써 乾이 되고 아래의 8爻는 陰爻로써 兌가 되며 少陰에서 위의 8爻는 陽爻로써 離가 되고 아래의 8爻는 陰爻로써 震이 되며 少陽에서 위의 8爻는 陽爻로써 巽이 되고 아래의 8爻는 陰爻로써 坎이 되며 太陰에서 위의 8爻는 陽爻로써 艮이 되고 아래의 8爻는 陰爻로써 坤이 되어 四象이 八卦를 生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四爻에서 上爻까지도 각기 一奇一偶로 分化하여 64卦 圓圖가 완성하게 된다.

이상의 내용에 대해 邵康節은 皇極經世 卷七 觀物外篇上에서 “太極이 既分에 兩儀立矣오 陽이 上交於陰하고 陰이 下交於陽하야 四象生矣라 陽交於陰하고 陰交於陽而生天之四象하고 剛交於柔하고 柔交於剛而 生地之四象하니 於是에 八卦成矣라 八卦相錯然後에

萬物生焉하니 是故로 一分爲二하고 二分爲四하고 四分爲八하고 八分爲十六하고 十六分爲三十二하고 三十二分爲六十四하니 …… 猶根之幹하고 幹之有枝하고 枝之有葉하야 愈大則愈少하고 愈細則愈繁이라 是故로 乾以分之하고 坤以翕之하고 震以長之하고 巽以消之하야 長則分하고 分則消하고 消則翕也라”<sup>5)</sup> 하였다.

震은 雷以動之하니 자라나기 시작하는 때가 되고 離와 兌를 지나 乾에 이르면 다 자라서 純陽이 되어 陰陽이 나뉘어지는 경계선이 되니 乾以分之라고 말한 것이다.

巽은 風以散之하니 흐트러뜨리기 시작하는 때가 되고 坎과 艮을 지나 坤에 이르면 다 사그러져서 純陰이 되어 합하여 모이니 坤以藏之라고 말한 것이다.

또 “乾坤은 定位也오 震巽은 一交也오 兌離坎艮은 再交也라 故로 震은 陽少而陰尙多也오 巽은 陰少而陽尙多也오 兌離는 陽浸多也오 坎艮은 陰浸多也니라”<sup>6)</sup>고 하였다. 이는 乾坤은 陰陽의 純卦로 上下의 자리에 위치하고 震은 一交하여 陽이 하나이고 兌離는 再交하여 陽이 두 개이니 震에서 乾에 이르는 과정은 一陽, 二陽, 三陽으로 陽이 점점 자라는 과정이고 巽은 初交하여 陰이 하나이고 坎艮은 再交하여 陰이 두 개이니 巽에서 坤에 이르는 과정은 一陰, 二陰, 三陰으로 陰이 점점 자라는 과정이 된다.

또 이어서 그는 “無極之前은 陰含陽也오 有象之后는 陽分陰也니 陰爲陽之母오 陽爲陰之父라 故로 母孕長男而爲復이오 父生長女而爲姤라 是以로 陽起於復而陰起於姤也니라”<sup>7)</sup>하였다.

이는 소강절이 64괘원도에서 循環의 의미를 설명하는 부분이다. 오른쪽의 姤卦에서 坤卦에 이르는 부분은 陰이 陽을 내면에 갈무리해 나가는 과정(陰含陽)이고 왼쪽의 復卦에서 乾卦에 이르는 부분은 陽이 陰을 分化시켜 나가는 과정(陽分陰)이다. 坤復之間이 無極이 되니 坤에서 姤까지의 우측반은 無極之前으로 巽에서부터 坤까지는 陽이 統一되고 沈靜하는 과

5) 邵康節. 皇極經世. 中國. 中州古籍出版社. 1992. p. 330.

6) 邵康節. 皇極經世. 中國. 中州古籍出版社. 1992. p. 331.

7) 邵康節. 皇極經世. 中國. 中州古籍出版社. 1992. p. 331.

정이고 좌측반은 有象之後로 震에서 乾까지는 陽이 分容하고 浮動하는 과정이 된다. 陰舍陽의 궁극은 復卦로 어머니가 자식을 임신한 모습이니 母孕이라 하였고 陽分陰의 궁극은 父生長女하는 姤卦라 하였다.

臨川吳氏は “좌변의 復卦에서 乾卦는 陽에 속하고 陽主生하니 言生物이 自無而有也오 우변의 姤卦에서 坤卦는 陰에 속하고 陰主殺하니 言殺物은 自有而無也라” 하였다. 또 “우변이 112陰爻, 80陽爻로 되어 있는 것은 陰舍陽이고 좌변이 112陽爻, 80陰爻로 되어 있는 것은 陽分陰이라” 하였다.<sup>8)</sup>

또 邵康節은 “陽在陰中은 陽逆行하고 陰在陽中은 陰逆行이오 陽在陽中과 陰在陰中은 則皆順行하니 此 眞至之理를 按圖可以見之矣니라”<sup>9)</sup>하였다.

이에 대해 朱子는 八卦를 가지고 설명을 하였다. 그는 “左陽右陰으로 震一陽 離二陽 乾三陽이니 順행이오 巽一陰 坎二陰 坤三陰이니 역시 順행이 되고 坤無陽 艮一陽 巽二陽이 되니 陽이 陰속에서는 逆行이 되고 乾無陰 兌離一陰 震二陰이 되니 陰이 陽속에서 逆行이 된다” 하였다.<sup>10)</sup>

思齋翁氏는 六十四卦를 가지고 설명을 하였다. 그는 “左陽右陰으로 左 32卦가 陽이 되는데 復卦初九에서 시작해 16變을 지나 二陽인 臨卦가 되고 또 8變하여 三陽인 泰卦가 되고 또 4變하여 四陽인 大壯卦가 되고 또 2變하여 五陽인 夬卦가 되고 이어 乾卦가 되어 전체를 주장하니 陽이 처음에는 느슨하다가 끝날 때는 급하고 그 나아가는 것이 순서있게 되니 이것이 陽在陽中이 順행이라는 것이다. 陽主升하니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또한 順行하는 것이 된다.

震이 下卦(震宮卦)인 復卦에서 無妄卦까지가 20陽(28陰)이요

離가 下卦(離宮卦)인 明夷卦에서 同人卦까지가 28陽(20陰)이요

兌가 下卦(兌宮卦)인 臨卦에서 履卦까지가 28陽(20陰)이요

乾이 下卦(乾宮卦)인 泰卦에서 乾卦까지가 36陽

(12陰)이 되니 20陽은 陽氣가 微弱한 것이요 28陽은 陽氣가 著顯한 것이요 36陽은 陽氣가 盛大한 것이니 陽이 북쪽에서는 微弱하고 동쪽에서는 著顯하고 남쪽에서는 盛大하니 또한 順行하는 것이다. 陽이 順行(20→28→36)한다면 陰이 逆行(위에서 아래로 12→20→28)한다는 것은 不言可知이다. 陽이 우변 32卦에서는 이와 반대가 될 것이니(아래에서 위로 逆行하며 12→20→28) 참되고 지극한 이치를 그림을 따라 살펴 볼 수 있다.”<sup>11)</sup>고 하였다.

#### 4. 복희육십사괘방도

먼저 64괘 방도의 그림을 그려놓고서 내용을 설명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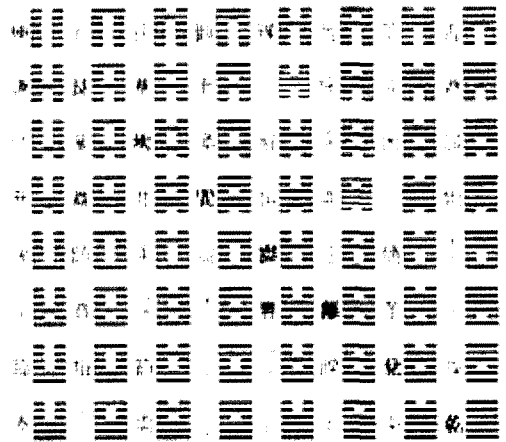


그림 3 복희육십사괘방도

이 그림도 복희육십사괘차서도로부터 유래한 것이다.

차서도의 乾宮卦의 첫 번째인 重天乾卦부터 8번째인 地天泰卦까지를 제일 아래에 배열하고 그 위에 兌宮卦의 첫 번째인 履卦부터 8번째인 臨卦까지를 배열하고 이와같이 하여 마지막으로 제일 위에 坤宮卦의 첫 번째인 否卦에서 8번째인 坤卦를 배열하여 64괘를 네모나게 배치한 것이다.

이에 대해 소강절은 “大易陰에 曰 天地定位에 否

8) 주역원. 대전, 학민문화사. p. 98.

9) 邵康節. 皇極經世. 中國. 中州古籍出版社. 1992. p. 340.

10) 주역원. 대전, 학민문화사. p. 99.

11) 주역원. 대전, 학민문화사. p. 99.

泰反類하고 山澤通氣에 損咸見義하고 風雷相薄에 恒益이 起意하고 水火相射에 既濟未濟하고 四象相交에 成十六事하고 八卦相盪에 爲六十四니라”<sup>12)</sup>고 하였다.

朱子는 이를 해석하여 “이것은 方圖에서 두 대각선이 서로 교차하는 것을 말한 것이니 서북쪽의 乾과 동남쪽의 坤은 天地가 定位한 것인데 동북쪽의 泰와 서남쪽의 否와 대응하고 乾의 안쪽이 兌요 坤의 안쪽이 艮이니 否 안쪽의 咸과 泰 안쪽의 損과 대응하고 나머지 4괘도 또한 이와 같아서 모두 16괘가 배속된다. 또 이르기를 方圖에서 서북쪽에서 동남쪽으로 가는 것은 乾卦로부터 坤卦로 가는 것이고 동북쪽에서 서남쪽으로 가는 것은 泰卦로부터 否卦로 가는 것이니 그 사이에 咸, 恒, 損, 益, 既濟, 未濟가 있으니 따라서 또 여기에서 八卦가 見義하니 양쪽 모서리로부터 乾坤과 서로 대응을 하니 어떻게 이렇게 교묘하게 생겨나는지를 알 수가 없다.”<sup>13)</sup>고 하였다.

天台董氏는 이르기를 “내가 邵子の 大易吟을 통해 方圖를 네층으로 나누어 살펴보니 그 첫 번째층 네 모서리에 있는 乾坤否泰 4卦는 이른바 天地定位에 否泰反類나 주위의 28卦를 가로세로로 살펴보면 모두 乾…坤八의 卦니 이것이 天地定位는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 두 번째층 네 모서리에 있는 兌艮咸損 40卦는 이른바 山澤通氣에 損咸이 見義나 주위의 20卦를 가로 세로로 살펴보면 또한 모두 兌二艮七의 卦니 이것은 山澤通氣의 象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세 번째층 네 모서리에 있는 坎離 既濟 未濟 4卦는 이른바 水火相射(射)에 既濟 未濟가 이것이나 주위의 12卦를 가로 세로로 살펴보면 또한 모두 離三坎六의 卦니 이것은 水火不相射의 象을 보여주고 있다.

그 가장 속에 있는 震巽 恒 益 4卦는 이른바 風雷相薄에 恒益起意니 그 象을 또한 살펴볼 수 있다. 이것으로써 살펴보면 소자의 詩가 분명하여 충분히 先天 法象 自然의 오묘함을 살펴볼 수 있다.”<sup>14)</sup>고 하였

다.

위의 내용은 乾坤卦와 乾坤이 배합되어 이루어진 否泰卦가 서로 대응하고 艮兌卦와 艮兌가 배합되어 이루어진 損咸卦가 서로 대응하고 震巽卦와 震巽이 배합되어 이루어진 恒益卦가 서로 대응하고 坎離卦와 坎離가 배합되어 이루어진 既濟未濟卦가 서로 대각선 상에서 대응하고 있음을 밝힌 것이다.

## 5. 복희육십사괘방위도

이것은 복희 64괘 원도 안에 복희 64괘 방도를 배치한 것이다. 朱子는 이것을 자신이 처음으로 배치를 하였다고 말하고 있다.<sup>15)</sup>

이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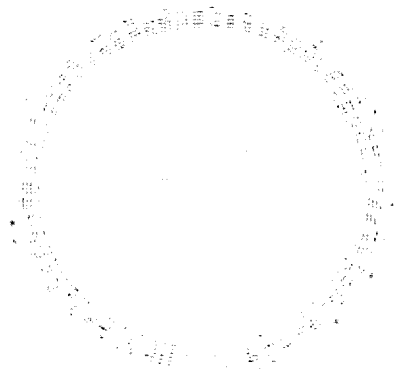


그림 4 복희육십사괘방위도

西山蔡氏가 이르기를 “64卦가 등글게 펼쳐진 것(圓圖)은 乾은 午方에서 다하고 坤은 子方에서 다하고 離는 卯方에서 다하고 坎은 酉方에서 다하니 陽은 子中에서 생겨나 午中에서 극성해지고 陰은 午中에서 생겨나 子中에서 극성해지므로 陽은 남쪽에 있고 陰은 북쪽에 있는 것이다.

네모나게 펼쳐진 것(方圖)은 乾은 서북쪽에서 시작하고 坤은 동남쪽에서 극진해지며 陽은 북쪽에 있

12) 주역元. 대전. 학민문화사. p. 101.

13) 주역元. 대전. 학민문화사. p. 102.

14) 주역元. 대전. 학민문화사. p. 102.

15) 주역元. 대전. 학민문화사. p. 114.

고 陰은 남쪽에 있으니 이 둘은 陰陽이 對待하는 원리이다. 圓圖는 밖에 있어 陽이 되고 方圖는 안에 있어 陰이 되니 둥근 것은 動하니 하늘이 되고 네모난 것은 靜하니 땅이 된다.”<sup>16)</sup>고 하였다.

즉 圓圖는 가운데가 비어 있으니 하늘을 상징하는 天圖가 되고 方圖는 가운데가 차 있으니 땅을 상징하는 地圖가 된다.

주자가 이르기를 “원도는 건괘가 남쪽에 있고 곤괘가 북쪽에 있으며 방도는 곤괘가 남쪽에 있고 건괘가 북쪽에 있다. 건괘의 자리는 양획이 많이 모여 있고 곤괘의 자리는 음획이 많이 모여 있으니 이것은 음양이 각각 같은 종류끼리 모여 있는 것이니 또한 自然의 法象이 아닌 것이 없다.”라 하였고 또 이르기 를 “원도는 하늘을 상징하여 한번은 順하고 한번은 逆하여(복희팔괘차서도를 보면 8괘가 생하는 순서는 一乾, 二兌, 三離, 四震, 五巽, 六坎, 七艮, 八坤의 순서로 생한다. 복희팔괘 방위도를 보면 좌측의 震, 離, 兌, 乾은 已生之卦를 세는 것이니 說卦傳의 數往者順이고 우측의 巽, 坎, 艮, 坤은 未生之卦를 推理하는 것이니 說卦傳의 知來者逆에 해당한다. 따라서 복희 64괘원도에서도 復卦에서 乾卦까지의 좌측 32괘는 順이 되고 姤卦에서 坤卦까지의 우측 32괘는 逆이 된다) 流行하는 가운데 對待가 있으니 震8卦(復卦에서 無妄卦까지)가 巽8卦(姤卦에서 升卦까지)와 상대 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방도는 땅을 상징하여 逆만 있고(小橫圖, 大橫圖가 逆만 있듯이 복희 64괘 방도도 右에서 左로 生하여 逆만 있다는 것이다.) 順이 없어 定位한 가운데 對卦가 있어 네 모서리가 서로 相對하니 乾의 여덟괘(乾卦에서 泰卦까지)가 坤의 여덟괘(否卦에서 坤卦까지)와 상대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것이 방도와 원도의 구별점이다. 원도가 하늘을 형상하고 있다는 것은 하늘은 둥글고 움직여 땅을 밖에서 싸고 있고 방도가 땅을 형상하고 있다는 것은 땅은 모나고 고요해서 하늘 가운데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sup>17)</sup>하였다.

소강절은 “先天之學은 心法也니 圓皆自中起하여

萬化萬事가 生于心也라”<sup>18)</sup>고 하였다. 이에 대해 朱子는 “가운데 텅빈 곳이 태극이고 32음 32양이 兩儀이고 16음 16양이 四象이고 8음 8양이 팔괘이다.”라고 하였고 또 이르기 를 “만물의 온갖 변화가 다 이곳으로부터 흘러나오니 이것은 心法이 다 가운데로부터 일어나는 것이다.”<sup>19)</sup>라고 하였다.

주자는 圓圖만을 가지고 설명을 하였지만 新安程氏(1251-1325, 이름은 眞方. 字는 道大. 號는 前村. 벼슬을 하지 않고 경학 연구에만 몰두함. 程氏啓蒙翼傳 등을 지음)는 이르기 를 “소강절이 빠라고 한 것은 방도와 원도를 겹쳐서 말한 것이다. 天地定位는 원도가 中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고 雷以動之, 風以散之는 방도가 中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니 모두 5와 10이 자리하고 있는 곳이다. 그러므로 원도는 왼쪽으로 돌되 64번째의 곤괘에서 시작하고 오른쪽으로 돌되 첫 번째의 건괘에서 시작하니 이것은 中이 天地가 定位한 곳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방도는 서북이 동남과 相交할 때 震巽에서 시작하고 동북이 서남과 相交할 때 恒益에서 시작하며 남과 북이 相值(서로 만남)할 때 恒震巽益에서 시작하고 동과 서가 相值할 때 震益恒巽에서 시작하니 이것은 中이 雷風이 動하고 散하는 곳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논해보면 원도는 定位에서 動하는 것으로 근본을 삼고 방도는 動하고 散하는 것에서 靜하는 것으로 작용을 삼고 있다. 그러므로 動하되 動이 없고 靜하되 靜이 없는 것은 진실로 先天의 心法인 것인저”<sup>20)</sup> 라고 하여 方圓圖를 모두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

雙湖胡氏(名은 一桂, 字는 庭芳, 강서 婺源人, 周易本義附錄纂疏를 지음)는 說卦傳의 “天地定位에 山澤이 通氣하며 雷風이 相薄하며 水火不相射”의 說을 引用하여 원도가 從中起하고 역시 說卦傳의 “雷以動之 風以散之 雨以潤之 日以恒之 艮以止之 兌以說之 乾以君之 坤以藏之 한다”는 說을 引用하여 방도가 從中起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天地定位는 남북의 子午의 中間에서 시작하

16) 尹相喆 譯. 皇極經世. 서울, 大有學堂. 2002. p. 61.

17) 주역원. 대전. 학민문화사. pp. 104-105.

18) 邵康節. 皇極經世. 中國, 中州古籍出版社. 1992. p. 341.

19) 주역원. 대전. 학민문화사. p. 108.

20) 주역원. 대전. 학민문화사. p. 108.

는 것이고 山澤通氣는 다음 서북과 동남의 괘이고 雷風相薄은 다음 동북과 서남의 괘이고 水火不相射은 또 다음 동과 서의 괘이니 원도는 남북의 中央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雷以動之 風以散之는 바로 방도의 中心에 자리하고 雨以潤之 日以烜之는 坎이 巽의 다음이고 離가 震의 다음이며 艮以止之 兌以說之는 艮이 坎 다음 兌가 離 다음이며 乾以君之 坤以藏之는 乾이 兌 다음 坤이 艮 다음으로 사실상 가운데로부터 서북과 동남쪽에 이르니 방도도 또한 中央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sup>21)</sup>라고 하였다.

또 소강절은 “圖雖無文이나 吾終日言에 而未嘗離乎是하니 蓋天地萬物之理가 盡在其中矣라”<sup>22)</sup>고 하였다. 이에 대해 주자는 “1년의 운행, 크게 129600년의 우주1년의 운행, 하루의 12시간의 변화가 모두 이 그림 속에 들어있는데 復卦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였고 또 “한달의 달의 변화, 天地의 終始, 人物의 生死, 古今의 世變, 갑갑의 이치가 모두 이 그림 속에 들어 있다”<sup>23)</sup>고 하였다.

## 6. 장개빈의 육십사괘 방원도에 대한 闡發

장개빈은 복희육십사괘원도에 대해서 “混然之妙가 出自天成하니 固非可以造作爲之者라(뒤섞인 가운데 질서정연함이 하늘의 자연스러움으로부터 나왔으니 진실로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만든 것이 아니다)”<sup>24)</sup>라고 하였다. 그는 특히 64괘 방원도를 인체의 구조와 생리적 특징과 배합하여 설명하여 醫易의 확립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원도와 인체구조의相合함을 밝힘

그는 醫易義에서 圓圖에 대해 “是圖는 雖象乎萬有나 尤切夫人之一身이라 故로 曰 先天圖者는 環中也니 環中者는 天之象也라 六十四卦가 列于外는 昭陰陽交變之理也오 太極이 獨運乎其中은 象心爲一身之

主也라 乾南坤北者는 象首腹之上下也오 離東坎西者는 象耳目之左右也라”고 하였다. 그가 이 그림이 더욱 사람의 一身에 절실하다고 한 것은 “天之氣는 卽人之氣오 人之體는 卽天之體”라고 한 그의 주장에 근본을 두고 있는 것이다.

“曰先天圖者는 環中也”라고 한 것은 皇極經世 觀物外篇 3장에 있는 말을 인용한 것이다. 環中은 복희 64괘원도가 빈 가운데를 빙 둘러서 배치되었다는 뜻도 되고 빈 가운데를 중심으로 기운이 순환하고 있다는 뜻도 되는데 이처럼 순환하는 것은 하늘의 모습이다. 64괘가 가운데의 빈 가운데 太極을 중심으로 밖에 배치되어 있는 것은 음양이 相交하여 변화하고 있는 이치를 밝힌 것이라 하였는데 그는 64괘 원도의 중심이 태극이 된다고 분명하게 기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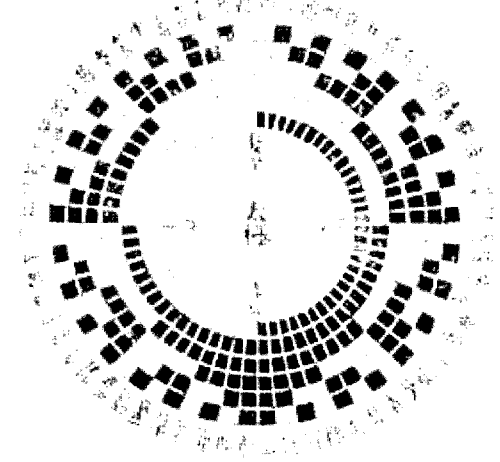


그림 5 복희64괘원도

그는 태극이 64괘원도의 중심에서 홀로 작용하는 것이 心이 一身의 主人이 되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心을 태극으로 본 것도 소강절의 설을 계승한 것인데 소강절은 “心爲太極이라”<sup>25)</sup>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黃畿는 注에서 “太極은 動靜之根이니 於天爲天心이오 於人爲道心이라 故로 云心爲太極이니 而衆理萬事之所從運也라”<sup>26)</sup>고 하였다. 乾爲首 坤爲腹

21) 주역元. 대전. 학민문화사. p. 109.

22) 邵康節. 皇極經世. 中國. 中州古籍出版社. 1992. p. 341.

23) 주역元. 대전. 학민문화사. pp. 109-110.

24) 張介賓. 類經圖翼. 서울. 成輔社. 1982. p. 388.

25) 尹相喆 譯. 皇極經世(강). 서울. 大有學堂. 2002. p. 1423.

26) 邵康節. 皇極經世. 中國. 中州古籍出版社. 1992. p. 436.



이오 離爲目 坎爲耳니 또한 원도의 배치와 인체의 구조가 相合함을 설명하고 있다.

2) 원도의 四象으로 人生을 四分하여 설명함

이어서 그는 “自復至同人은 當內卦震離之地니 爲陰中少陽之十六으로 在人爲二八이오 自臨至乾은 當內卦兌乾之地니 爲陽中太陽之十六으로 在人爲四八이오 自姤至師는 當內卦巽坎之地니 爲陽中少陰之十六으로 在人爲六八이오 自遁至坤은 當內卦艮坤之地니 爲陰中太陰之十六으로 在人爲八八이라”고 하였다.

소문의 상고천진론에서 丈夫의 일생을 8을 기준으로 하여 8세, 二八, 三八, 四八, 五八, 六八, 七八, 八八로 8등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장개빈은 震卦가 內卦가 되어 시작하는 復卦에서부터 離卦가 內卦가 되어 끝나는 同人卦까지의 16괘를 陰中의 少陽(陽中의 少陰으로도 볼 수 있다. 위의 陽中之小陰도 陰中之小陽으로 볼 수 있다.)으로 보고 인체에서 二八에 해당된다고 하였으니 卦 하나에 一歲씩을 배합하여 설명한 것이니 당연히 震이 內卦가 되어 시작하는 復卦에서부터 8번째 끝나는 無妄卦까지는 一八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이를 근거하여 도표를 그리면 다음과 같다.

	下卦	重卦		下卦	重卦
一八	震	復에서 無妄	五八	巽	姤에서 升
二八	離	明夷에서 同人	六八	坎	訟에서 師
三八	兌	臨에서 履	七八	艮	遯에서 謙
四八	乾	泰에서 乾	八八	坤	否에서 坤

표 1 장개빈의 연령별 八卦 배속

3) 원도의 前後 32卦로 人生의 前半生, 後半生을 설명함

그는 “陽生于子而極于午 故로 復曰天根이니 至乾爲三十二卦가 以應前之一世하고 陰生于午而極于子 故로 姤曰月窟이니 至坤爲三十二卦가 以應後之半世라 前一世는 始于復之一陽하야 漸次增添하야 至乾而

陽盛已極하니 乃象人之自少至壯하고 後半生은 始于姤之一陰하야 漸次耗減하야 至坤而陽盡以終하니 乃象人之自衰至老라.”고 하였다.

먼저 64卦에 대해 24절기와 12지지를 배합하면 다음과 같다.

절기	12지지	배합괘	절기	12지지	배합괘
冬至	子之半	坤, 復	夏至	午之半	乾, 姤
小寒	丑之初	頤, 屯, 益	大暑	未之初	大過, 鼎, 恒
大寒	丑之半	震, 噬嗑, 隨	立秋	未之半	巽, 井, 蠱
立春	寅之初	無妄, 明夷	立秋	申之初	升, 訟
雨水	寅之半	賁, 既濟, 家人	處暑	申之半	困, 未濟, 解
驚蟄	卯之初	豐, 離, 革	白露	酉之初	渙, 坎, 蒙
春分	卯之半	同人, 臨	秋分	酉之半	師, 遯
清明	辰之初	損, 節, 中孚	寒露	戌之初	咸, 旅, 小過
穀雨	辰之半	歸妹, 睽, 兌	霜降	戌之半	漸, 蹇, 艮
立夏	巳之初	履, 泰	立冬	亥之初	謙, 否
小滿	巳之半	大畜, 需, 小畜	小雪	亥之半	萃, 晉, 豫
芒種	午之初	大壯, 大有, 夬	大雪	子之初	觀, 比, 剝

표 2 장개빈의 64卦·24節氣·12地支 배합

二至, 二分, 四立에는 2개의 괘가 배합되고 나머지 절기에는 3개의 괘가 배합된다. 陽氣가 子에서 생하여 午에서 극성해지니 양기가 처음 생하는 復卦를 天根이라 하고 復卦에서 乾卦까지의 32괘는 소년기와 장년기의 사람의 전반생에 해당하고 陰氣가 午에서 생하여 子에서 극성해지니 음기가 처음 생하는 姤卦를 月窟이라고 姤卦에서 坤卦까지의 32괘는 사람이 쇠약해져서 늙는 시기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天根에서 天 은 陽을 대표하고 根은 뿌리의 뜻이니 天根이란 陽氣의 始生을 의미하고 月窟에서 月은 陰을 대표하고 窟은 기운이 시생하는 바탕을 나타내니 月窟이란 陰氣의 시생을 상징한다. 이 용어는 64괘 원도를 설명하면서 소강절이 처음 사용하였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耳目聰明男子身이

귀 밝고 눈 밝은 남자의 몸을

洪鈞賦予不爲貧이라

조물주께서 나에게 주셨으니 가난하지 않도다

須探月窟이라야 方知物이니

모름지기 월굴을 더듬어야 바야흐로 사물을 아니

未躡天根이면 豈識人가

천근을 밝지 않았다면 어찌 사람을 알 수 있으랴

乾遇巽時에 觀月窟이오

건이 손을 만날 때 월굴을 볼 수 있고

地逢雷處에 見天根이라

땅이 우레를 만나는 곳에서 천근을 볼 수 있다.

天根月窟間來往하니

천근과 월굴이 한가로이 왔다갔다하니

三十六宮이 都是春이로다

36궁이 모두 봄이로다

朱子가 해석하기를 “선천도에서 복괘에서 건괘까지는 陽에 해당되고 구괘에서 곤괘까지는 陰에 해당되니 陽은 사람을 주장하고 陰은 사물을 주장한다. 천근과 월굴은 복괘와 구괘의 두 괘를 가리키니 원도가 처음 시작하는 곳이 된다.

36궁의 설은 64괘에서 不易者(不倒轉卦)가 8괘니 乾, 坤, 坎, 離, 頤, 中孚, 大過, 小過卦가 되고 反易者(倒轉卦)가 28괘니 본래 56괘를 反易하면 28괘가 되니 이를 더하면 36이 된다. 이 36괘가 64괘의 변화를 이루는 것이다. 都是春이라는 것은 天理가 流行하여 이미 항상 그 사이에서 周流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sup>27)</sup>라고 하였다.

또 그는 “縱觀之則象在初爻하니 其乾盡于午하고 坤盡于子하야 當二至之令하니 爲天地之中而左右以判이라 左主昇而右主降하니 昇則陽居東南하야 主春夏之發生하야 以應人之漸長하고 降則陰居西北하니 主冬秋之收斂하야 以應人之漸消라 橫觀之 則象在二爻하니 其離盡于卯하고 坎盡于酉하야 當二分之中하니 爲陰陽之半而上下以分이라 上爲陽而下爲陰이니 陽則日出于卯하야 以應晝之爲寤하고 陰則日入于酉하야 以應夜之寐焉이라 卽此一圖면 而天下之妙와 運氣之理가 無不具矣라”고 하여 子에서 태어나 卯에서 자라고 午에서 극성해졌다가 酉에서 점차 노쇠해지는 원리를 배합하였고 또 卯(春分)에서日出하고 從에서 깨며 酉(秋分)에서 日入하고 從에 드는 원리가 있어 하루의 변화, 일년의 변화, 사람의 일생의 변화가 모두 이 그림 속에 갖추어져 있다고 하였다.

27) 주역元, 대전, 학민문화사, pp. 103-104.

4) 방원도로 天地方位의 음양편차를 설명함

장개빈은 “再闡方圖컨데 其義象地라 乾始于西北하고 坤盡于東南이라 天不足西北 故로 圓圖之陽은 在東南하고 地不滿東南 故로 方圖之剛은 在西北이라 是皆伏羲之卦也라”고 하였다.

이는 원도는 乾이 남쪽에 있고 坤이 북쪽에 있으며 방도는 乾이 서북쪽에 있고 坤이 동남쪽에 있는 것을 근거로 天地 음양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소강절은 “天之陽은 在南而陰在北하고 地之陰은 在南而陽在北이라”<sup>28)</sup>하였고 장개빈은 “天陽在南故로 日處之하고 地剛在北故로 山處之라”<sup>29)</sup>고 하였다. 素問의 五常政大論에서 “天不足西北하니 左寒而右涼하고 地不滿東南하니 右熱而左溫이라”<sup>30)</sup>하였다. 天不足西北은 음양상대론에서도 나오는데 이에 대해 장개빈은 “하늘은 양이고 서북방은 陰方이기 때문에 하늘은 서북쪽이 부족하고 땅은 음이고 동남방은 陽方이기 때문에 땅은 동남쪽이 부족하다”<sup>30)</sup>고 하였다. 여기서 좌우는 서북을 등지고 동남방을 보면서 방위를 정한 것으로 서북방의 우측은 서쪽으로 金에 속하여 서늘하고 서북방의 좌측은 북쪽으로 水에 속하여 날씨가 춥다. 동남방의 왼쪽은 동쪽으로 木에 속하여 따뜻하고 동남방의 오른쪽은 남쪽으로 火에 속하여 날씨가 덥다.

장개빈은 “天不足西北과 地不滿東南”을 中國의 지형과 결합하여 설명하고 다시 이를 원도 방도와 결합하여 설명하였다.

그는 “崑崙은 峙于西北故로 西北高而多山이라”<sup>31)</sup>하였다. 이는 서북쪽에 곤륜산 같은 높은 산이 솟아 있어 하늘이 침범을 받아 不足하게 되어 있어 원도에서 陽이 동남쪽에 있게 된 것이라 하였다.

또 그는 “滄海는 浴于東南故로 東南下而多水라”<sup>31)</sup>하였다. 이는 동남쪽은 지대가 낮아 푸른 바다가 동남

28) 邵康節, 皇極經世, 中國, 中州古籍出版社, 1992, p. 348.

29) 張介賓, 類經圖翼, 서울, 成輔社, 1982, p. 404.

30) 張介賓, 類經, 서울, 成輔社, 1982, p. 24.

31) 張介賓, 類經圖翼, 서울, 成輔社, 1982, p. 405.

쪽에 있게 된 것으로 방도에서 剛이 서북쪽에 있게 된 것이라 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은 원도는 하늘의 질서를 나타내고 하늘은 동남방이 陽, 서북쪽이 陰이 되어 陽을 爲主로 한 乾卦가 동남방에 배치되고 陰을 위주로 한 坤卦가 서북쪽에 배치되며 방도는 땅의 질서를 나타내고 땅은 서북쪽에 산이 솟아 있어 剛하고 동남쪽에 지대가 낮아 물이 고여 있어 柔하여 오히려 서북쪽에 乾卦가 동남쪽에 坤卦가 배속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天地의 음양의 위치가 반대가 된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으로 장개빈의 뛰어난 지혜를 엿볼 수 있는 내용들이다.

## 7. 結論

복희 육십사괘차서도 방도, 원도에 대한 연구와 張介賓의 육십사괘방원도에 대한 의역학적 闡發을 연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64괘의 생성 원리에는 邵康節의 一分爲二法說과 繫辭傳의 一貞八悔說이 있고 이를 가로로 배열한 그림을 伏羲六十四卦次序圖(大橫圖)라 하는데 64괘가 생긴 근원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

2. 복희六十四卦圓圖는 大橫圖를 둘로 나뉘어 앞의 32괘는 왼쪽에 위에서 아래로 배치하고 뒤의 32괘는 오른쪽에 위에서 아래로 둥글게 배치한 것으로 子午卯酉를 중심으로 陽始(子), 陽長(卯), 陽極(午), 陰始(午), 陰長(酉), 陰極(子)의 象이 뚜렷하게 드러나 있는데 이는 天道가 循環하는 이치를 나타내고 있다.

3. 복희六十四卦方圖도 역시 大橫圖에서 유래한 것으로 地道의 원리를 나타내고 있는데 역시 先天法象 自然之妙를 나타내고 있다.

4. 복희육십사괘방원도는 하늘이 땅을 싸고 있는 이치를 본받아 복희 六十四卦圓圖안에 복희六十四卦方圖를 배치한 것으로 朱子가 처음으로 배치하였다. 圓圖는 둥글게 배치되고 속이 비어 있어 하늘의 순환 질서를 나타내고 方圖는 네모나게 배치되고 속이 차

있어 땅의 존재 모습을 나타내며 모두 作用이 中心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 方圓圖에는 한달의 변화, 1년의 운행, 129600년의 우주1년의 변화, 천지의 중시, 人物의 生死, 古今의 世變의 원리가 모두 담겨져 있다.

5. 張介賓은 의학을 역학의 원리로 해설한 醫易學을 定立하였는데 六十四卦方圖에 대해서도 인체와 結合하여 많은 闡發을 하였다.

첫째, 그는 六十四卦圓圖의 중심이 태극으로 人身의 心에 해당하고 乾南坤北 離東坎西는 上首下腹 左右耳目과 대응한다고 하였다.

둘째, 圓圖를 四等分한 四象으로 人生을 四分하여 배합하고 있는데 이는 六十四卦와 素問 上古天真論의 8數로 변환하는 丈夫의 원리를 배합하여 설명한 것이다.

셋째, 그는 또 圓圖 에는 陽이 始生하는 復卦(天根), 陰이 始生하는 姤卦(月窟)의 순환이 교대하듯이 인간의 生長衰老의 이치와 하루 중 寤寐의 이치가 갖추어져 있다고 하였다.

넷째, 그는 圓圖에서 乾이 南에 있고 坤이 北에 있는 이치를 天陽在南, 天不足西北으로 설명하였고 方圖에서 乾이 西北, 坤이 東南에 있는 이치를 地剛在北, 地不滿東南으로 설명하여 64괘의 원리와 醫學을 밀접하게 결합하여 설명하고 있다.

## 參考文獻

<단행본>

1. 尹相喆譯. 皇極經世. 서울. 大有學堂. 2002.
2. 김상섭 해설. 역학계몽. 서울. 예문서원. 1994.
3. 邵康節. 皇極經世. 中國. 中州古籍出版社. 1992.
4. 張介賓. 類經. 서울. 성보사. 1982.
5. 張介賓. 類經圖翼. 서울. 成輔社. 1982.
6. 주역元. 대전. 학민문화사.